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8)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치유의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은 모두 다 복음이었다. 그분의 사역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었다. 비진리와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주신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복음이 아닌가!

그러면 이같은 복음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인가?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 1:1-3).”

먼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는데 동사의 시제가 다 현재완료형이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왔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왔으며,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목해왔고, 손으로 만져왔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2절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았고”가 현재완료형이다.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완료형으로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들은 바인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사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요한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들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비단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엡 4:21) 여기서도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다. 너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도록 가르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의 양이나 다른 누구의 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경 교사나 목사님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의 참 랍비, 선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육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분께 듣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